

사람만 지구의 주인인가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1>



안거가 끝난 후...

부처님께서 가비라위국 니구울원에 계시실 때의 일입니다. 그 때 신앙심이 깊은 마하남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식당에 모여서 세존을 위해 가사를 짓고 있다. 세존께서 머지않아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가사가 다 지어지면,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인간 세상을 유행하실 것이다.”

마하남은 가슴이 떨려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 몸에 힘이 빠져 어지랄 바를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가르침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반간 안거를 마치면 부처님은 비구 스님들이 지은 가사를 입고 세상을 유행하실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저는 언제나 지금처럼 부처님과 친한 스님들을 만나 뵈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명 세존을 보거나 세존을 보지 않거나, 친한 비구들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그대는

면 인색함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시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자에게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여섯째는 하늘을 생각하는 일이다. 선업을 짓고 선정을 닦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거룩한 제자로서 앞의 다섯 가지와 뒤의 여섯 가지를 잘 이루면 배운 자취가 남아서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 알고 잘 실천하며 잘 결정되어 감로문에 머물 것이다.”(잡아함경 제33권(932경))

석 달 동안 마하남은 참 행복했었습니다. 안거 중인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참으로 큰 공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자기 마을에서 안거하셨으니 석 달 동안 부처님은 온통 ‘자기 차지’가 되어 수시로 밥을 묻고 공덕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거가 끝나 부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구에게 밥을 묻고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그의 난감함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우리도 이제 막 동안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종래 안거는 즐거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스님들의 일과와 거의 다르지 않게 참선을 하는 이들도 많아졌고

스스로를 의지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잡아함경’ 11가지 가르침따라 가행정진을

오직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노력하고 뒤야 익혀야 한다.

마하남아, 바른 믿음을 가져라. 계를 완전하게 갖추어라.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라. 항상 배울 여려.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어라. 이 다섯 가지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섯 가지에 의지하여 여섯 가지 생각하는 법(六念處)을 뒤야야 한다. 여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여래를 생각하는 일이다. 여래를 생각할 때에는 여래에게 열 가지 이름이 있음을 자세히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둘째는 법을 생각하는 일이다. 수행을 충실히 한 수행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수행을 하였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덕목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셋째는 계를 생각하는 일이다. 생명 있는 자들을 해치지 말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갖지 말고, 그릇된 욕망에 빠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다섯 가지를 언제 어느 때라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다섯째는 보시를 생각하는 일이다. 보시를 하

기도를 올리거나 또는 염불과 절 수행도 하는 등 그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의 새로운 수행모습을 보았을 것이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이 약속한 기간인지만 입승 스님의 매서운 경책도 있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 어떻게든 수행을 이어갈 수는 있었으나 다만 따지고 보면 석 달 뒤의 나날이 문제입니다. 꼭 짜여진 일정에서 풀려나 자칫 공물여 쌓아온 수행의 탑을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예감이라도 하겠는지 종정스님께서서는 “결제는 스승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요, 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동안거 해제 법어를 베풀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뭘까 궁금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잡아함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열한 가지 사함함이 여러 분의 등불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 감로문 앞까지 인도해 드릴 것이요, 그렇게 열한 가지를 스승 삼아 석 달을 지나다보면 어느 사이 구슬땀 속에서 수행의 참맛을 알게 해 줄 하인거 입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형(종국역경원 역경위원)



혜경 스님

(양주 화당정사 조실)

최근 인류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진 해일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이 훼손된 지구에는 해가 갈수록 재앙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중생들은 ‘인류가 무엇에 의해서 아니 어떻게 하여야만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지요.

지구문제에 관심 있는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正法)에 따른 보살도(菩薩道)의 실천(行)이 그것입니다.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 인류를 구하고, 자기도 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는 반야지혜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반야는 베푸는 동안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를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봉사행해야 합니다. 보살의 회향은 일체중생이 다같이 행복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이



〈법화경〉의 권위자인 혜경 스님.

타행(利他行)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타행은 자비심을 발하여 남의 곤란을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남을 위한 행을 통해 자신의 번뇌 망상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은 작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넉넉해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찰에 가면 목어가 있지요. 목어는 눈 뜨고 잡자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어를 바로 눈뜨고 잡자는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어를 두드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의미가 강하지요.

불자들이부터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경책한 뒤 사교를 전환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과 작용이 그대로 ‘도(道)’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연과학·인문학·예술학 등 두루 해박... 법화경 권위자

혜경 스님은

현재 양주사 화당정사에 머물고 있는 세수 72세의 혜경 스님은 새로운 포교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스님은 “요즘 불교계에 문제가 많다”며 “가장 먼저 불사 개념이 틀렸다고 일갈했다. 스님은 “전국 곳곳에 절 짓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있는 절을 ‘팔아서라도’ 포교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것이 포교를 본령으로 하는 불교”라고 설명했다.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을 아우르는 해박한 과 정교한 논리로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실천행을 강조한다.

스님은 ‘법화전태’ 홈페이지를 개편해 내달에 재개통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놓은 저술과 번역 내용을 후학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완을 거듭해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것.

수행하며 틈틈이 경전번역에 주력해온 스님은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화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삼),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독립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정이 생기는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우주의 대생명’에 의해 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근본적으로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 공존 공영해야 합니다. 사람만이 지구의 주인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

석가세존이 입멸한 후 약 2500년간 고승대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우주의 실상을 증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주의 실상을 증득한 고승대덕마저도 언어와 문자의 부족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던 관계로, 불교는 자연히 민중과 멀어지고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서양의 신론명이 휩쓸면서 불교의 세계관이 물러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포함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소비하고 파괴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인간과 자연은 공존의 원칙을 어기고 지배하는 개념을 가지면서 환경오염은 가속화됐고,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두가 존중하고 깊은 우애를 가지고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존의 틀속에 우주 전체의 대조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른 생물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잘못을 즉시 반성하여 바로잡지 않는 한 지구는 갈수록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 절대로 구제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 물질의 풍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이 기원정

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을 펴냈다.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한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했다. 스님은 법화사에서 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혜경(惠敬)이란 법명을, 아옹 스님에게서 회옹(晦翁)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스님은 재단법인 법화중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법화경>의 권위자로서 경전공부모임을 이끌며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毒素,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병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장조율, 관절염, 염,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담, 배변 작용에 기여

숙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가사님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을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율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송이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용사**
054-372-5721

• 일금처 : 농림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법,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체내경맥진법, 맥조침법, 오행침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침법, 임상실습
- ▶ **개강:** 2005. 3. 2. 수·목반 / 금·토반 (주·야간반 : 3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 경로자 우대

매회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로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윤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의학전문인 이호섭 박사의 석불 사랑 20년

천년의 미소 - 한국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이진 문장출판사
가격 : 9만 5천원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진 우리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近世에 이르러 수많은 石佛은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분명하며 소중한 예술품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원 고문 이호섭 박사가 20여년 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약도, 조성연대, 특징 등을 정리했다.

구입문의 : **(02)2678-3042**
이호섭 이비인후과



양주 화당정사에 주석하는 혜경 스님은 불자들이 올바른 기르침을 따라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에 계실 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햇묵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집착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비구들이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햇묵을 엮어 건너 가야겠군.' 하고 햇묵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햇묵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햇묵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햇묵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햇묵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 햇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 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햇묵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햇묵의 비유로써, 교법(敎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햇묵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 있겠느냐'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그 깨달음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깨달음은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집에서 깨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삼매에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20% 의식의 세계를 포함해 4차원의 세계인 80% 무의식의 세계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아득한 과거부터 미래까지 두루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새벽에 셋별보고 깨달았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우주 전체 생명체를 관통시켰다는 뜻이지요. 깨달음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우주관 인생관을 갖게 될 때 명확해집니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실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형상은 없지만 성품은 이 세상에 두루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다는 것은 힘과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 영혼이 없습니다. 무아(無我) 즉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식(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내가 동일성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전생과 현생이 한마음이지만 부모의 행위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이 다른 형체들의 생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면 틀려버립니다.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으로 아는 내증(內證)이라고 하는데, 즉 '자기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말하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의식은 언어가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에는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모두 방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방편도 진실함에 기초를 뒀야 합니다. 상좌부는 절대절명으로 쇠가모니 부처님의 말만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부는 부처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난행도(難行道, 자력으로 오랜 시간 수행)와 이행도(易行道, 불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생활 속에서 수행)의 차이만 있습니다. 현재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참선입니다. 하지만 참선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만 가능한 난행도입니다.

모든것 버려야 해탈의 문 통과

그래서 중생들은 일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열불 주력등 이행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열불 주력등 이행도를 하면서도 쉽게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미타불' 만 번, 저녁에 '존제진언(나무 사다남 삼야 삼뜻다 구치남 율자래 주제 존제 사바하 부름) 천 번을 고성(高聲)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귀로 들어서 정화되고 우주의 파장과 자신의 파장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염불을 하면서 반드시 딱도 함께 배울어야 정화가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도라던가 어떤 일을 회향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 수행하십시오. 불교의 이치를 알고 보면 애당초 마음을 비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겠다는 마음도 결국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복을 얻고 해탈의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 김원우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만허 스님

한라산엔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다. 제주 한라산엔 그리고 노루가 많다. 긴긴 겨울, 먹이를 찾아 노루들은 이리저리 헤미다니다. 한라산 관음사 마당까지 노루들은 내려와 먹이를 찾아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곤 한다. 만허 스님, 그는 이런 노루들에게 하루 한차례씩 먹이를 나누어 주었다. 시래기와 찹냉콩 찹어 놓은 것. 동백나무 어린 잎들을 따서 포대자루에 담아놓은 것들을 꺼내 노루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마치 어린 자식들에게 모이를 주듯이 그렇게 정성들여 노루들을 보살피곤 했다. 노루들은 만허스님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겁이 많은 짐승들이지만 경계하지 않고 그의

행기곤 하였다. 그것은 동행(同行)이었다. 동행, 함께 가는 길. 그리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거기 그들에게 있었고, 여러 일들이 원만해졌다. 누룩누룩 기운 누더기를 걸치고 노루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만허 스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행로(行跡)를 만허 스님, 그는 그렇게 몸소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주 한라산 관음사는 추운 겨울에도 따스했다. 필필필 눈 내리는 한겨울 오후, 노루들과 어울려 있는 만허 스님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 한 폭의 수채화였다.

세상은 견디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다.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 절망하고, 어떤 이는 죽음을 결심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번다하고 처참한 계절의 언덕밭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장철마다 시래기 만들어 겨우내 노루들에게 나눠줘

그 와중에서 아직까지 제정신을 잃지 않고 웃으며 견뎌내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나마 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따달지 않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찾아, 자기의 할 일을 찾아 무언(無言)의 보살행을 행하는 우리의 도반 만허 스님 같은 이들이 존재해 있기에 그러하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무슨 내세움을 위해 행하는 것은 진정한 행(行)이라 할 수 없다.

아무런 사심 없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저 어떤 강한 '부름'에 의해 행해지는 행(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求道)의 참 모습이다. '만허', 만가지들 만사(萬事)를 모두 비워버린다는 그의 범법처럼 스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겨울, 필필필 눈 내리는 제주 한라산 관음사의 마당에서 노루들과 함께 교감(交感)을 나누는 그의 뒷모습은 진실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를 일러 우스개 소리처럼 '만허 보살'이라 하였고, 그는 그저 허허로운 표정으로 미소짓곤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구의 삶이 신자락에 어리는 저녁노을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누너져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만허 스님, 그와 함께 보낸 몇 해의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이 겨울 저녁에 눈이 내린다. 눈은 내려서 온 산천을 덮고 나뭇가지들을 부러지게 만들고 지나간 일들을 아득하게 만든다.

만허, 만사를 비우고 허허롭게 하는 그의 보살행이 영원하길 바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그림·문병성

주위에 물러들어 손으로 건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곤 했다.

양껏 먹이를 받아먹은 노루들은 고맙다는 듯이 만허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산중턱 쪽으로 하나 둘씩 올라간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엔 어김없이 다시 관음사 마당으로 내려왔다.

노루들과의 은밀한, 친밀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만허 스님과 노루들과의 깊은 약속은 긴긴 겨울 내내 끊이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하나의 무언(無言)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허 스님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이리저리 탐문을 해서 배추와 무, 시래기들을 수집하여 트럭에 가득가득 실어 오곤 했다. 그것들을 정성스레 포대자루에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

긴긴 겨울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노루들을 위한 그의 배려는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었다. 그것은 실로 보살행이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만허 스님의 행위는 아주 침착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 행하는 그의 무뎠음하면서도 믿음직스런 보살행은 관음사 여러 대 중스님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자주 들리는 신도 보살님들도 그를 도와 노루들의 먹이를 같이

Advertisement for Chanduk Yondong (찬덕연등) lanterns. It features various styles of lanterns like Gongdang (공단등), Palmojorip (팔모조립등), Palmojeom (팔모점등), and Manwol (만월등).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and a note about pre-ordering.